

# 수 학 보 고 서 (1차)

소 속 : 상경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성 명 : 이혜진 학 번 : 20721928 핸드폰 : 1-559-412-9428

파견연도 : 2010. 01 ~ 2010. 12

교류대학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 1. 파견 학교(위치 및 교통편) 소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는 Fresno 시내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주로 택시를 이용합니다. 원래 학교 측에서 pick up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제가 파견되었을 당시 재정난으로 사비를 부담하여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야 했습니다. 미국, 특히 서부는 자가용이 발달되어 있어 San Francisco같이 대도시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학교에서 차로 5분 거리, 도보로 30분 거리에 Wal-mart와 Fashion Fair라는 쇼핑몰이 자리잡고 있으며, 학교 바로 앞에는 Seven Eleven, 파파이스, Wendys 등 편의점과 Fast food점들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이나 Wal-mart에 가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아 30분마다 1대씩, 그리고 운행시간도 그리 긴 편이 아닙니다. 해가 진 다음, 저녁이나 밤에는 버스 이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학생들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교환 학생들에 경우 활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렌트를 할 경우 한 달에 500불 이상의 가격이 듭니다. 몇몇의 교환학생들은 돈을 모아서 차를 구입하고 가기 전에 다시 되팔기도 합니다. 프레즈노는 샌프란시스코와 3시간 반, LA와는 4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Amtrak이라는 미국 철도를 이용하는 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 2.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교 부대시설 소개

기숙사 형태는 1인실, 2인실, 3인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Community Double Room with 10 flex meal 형태에 머물렀습니다. 2인실에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주일에 10번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lex plan을 선택하면, 120불 가치의 쿠폰을 주는데, 학교 내에 스타벅스나 서브웨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plan은 한 학기에 \$3576정도입니다. 기숙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학생은 교외에 아파트를 구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외의 안전은 그리 양호한 상태

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에 머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음주, 기숙사 키 분실, 그리고 체크인/아웃입니다. 미국에서 법적 음주 허용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만 21세가 되지 않는 신입생들이므로, 기숙사내에서의 음주는 철저히 단속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가법게 훈방조치에서 심하게는 기숙사에서 퇴실조치가 됩니다. 또한 기숙사에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시, 기숙사 열쇠카드를 분실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25\$에서 75\$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기숙사는 24시간 오픈 되어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분리 되어 있지 않고 복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숙사 공공장소에서만 신호가 잡히며, 보통 학생들은 룸메이트와 인터넷비용을 반반 부담하여 사용합니다.

도서관은 새로 증축되어 영남 대 도서관만큼 뛰어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는 스타벅스가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학생들처럼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학생들은 도서관에서도 자유롭게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러한 환경이 거슬리는 학생은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각 층마다 몇 개의 individual room이 따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시간은 요일마다, 휴일마다 다릅니다.

### 3. 교육과정

미국에서는 경영학내에서 회계, 재무, 국제경영, 경영정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스는 그에 맞게 짜여 있으며, 기초 과목이 아닌 이상 그 과목을 듣기 전에 선수과목을 수료해야만 들어야 하는 코스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재무관리를 듣기 위해 수업에 들어갔으나, 그에 따른 선수과목을 듣지 않아 코스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와는 달리 그 코스를 듣기 전, 그 과목에 대한 선수 지식이 없다면 3학년이나 4학년들이 듣는 코스를 따라가기가 벅합니다. 교수들의 강의보다 같이 듣는 학생들 자체가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목명보다는 과목명에 따른 과목 번호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International Business(과목명) - BA174(과목번호))

교환학생과는 달리, 상경대에서 파견하는 것은 “방문학생”입니다. 교환학생이 18학점을 수료할 수 있는 반면에, “방문학생”은 최대12학점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학기에 4과목 정도를 듣게 됩니다. 마케팅이나 회계 중 몇몇 수업은 4학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1학점당 200불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야 합니다

### 4. 수업내용

저는 이번 학기에 4과목 정도를 수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개 정도의 과제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보통 3개의 시험, 5개의 퀴즈 그리고 발표 등이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시험 시기도 과목마다 달라서 교수의 재량에 따라 몇 개의 시험이 언제 어떻게 치러질지 결정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과 다르다고 느낀 점은 언제나 적극적인 학생들의 태도에 조금은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과 달리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수업에서 자신 있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미국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불편했던 점은 교수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어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익이나 토플에서 자주 듣던 영국식,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교수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중동, 중국 등 다양한 영어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 5. 건의사항 (개선되어야 할 부분)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파견시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학기 시작은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파견되었던 봄학기는 1년 교육과정에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지, 저희가 무엇을 시작하기에 있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서로 친해져 있었고, 클럽과 같은 사교 활동들도 봄학기에 파견된 학생들에게는 많지 않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긴 여름 방학도 학생들에게 고민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여름방학도 5월말에 시작되어, 가을 학기 시작인 9월까지 이어집니다. 3개월의 긴 시간 동안, 몇몇의 사람들의 경우 그 사이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에서 3개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 계절학기나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견시기를 가을로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학교생활에 그리고 여름보다 짧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주변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타 학교 파견 학생들이 흑인들에게 학교 앞 세븐 일레븐에서 구타와 강도를 당한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학교 앞 거리에서 흑인이 차를 타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학교 내 메일로 조심하라는 경고메일이 오지만, 여전히 여자이고 외국학생인 입장에서 안전이 위협된다고 느낍니다. 더욱이 교환학생 대부분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가지고는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차가 없어 제약되는 일들이 많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 국제처에 남기고 싶은 말

미국 학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학기 더욱 알차게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